



2018학년도 온라인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인문·체능계)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성명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 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시오.
4.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
5.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야 하고 수정액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6. 찍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문제별로 요구한 분량 이내로 논술하시오.
7. 인문·체능계열 문제지는 총 2장 3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3개월에 걸쳐 자행된 르완다의 인종 학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건들 중 하나였다. 인터아함웨(Interahamwe, ‘함께 죽이는 사람들’이라는 뜻)에 소속된 후투 민병대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웃을 살해했다. 투치족만 죽인 것이 아니라 투치족에게 동정적인 후투 온건파도 살해했다. 문명사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의사들, 법률가들, 교사들도 그 학살에 가담했다. 두 민족이 섞여 있는 가정에서는 후투 남편이 투치 아내를 살해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동굴, 숲 속, 습지 등으로 달아나서 힘겹게 연명하며 뒤쫓아 오는 학살대를 피하려고 애썼지만 대부분 오래 숨지 못했다.

이런 광적인 학살을 더욱 어처구니없게 만드는 것은, 르완다의 인종 개념이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완전 허구라는 사실이다. 후투족과 투치족은 역사 이래 동일한 민족이었다.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종교와 전통을 가졌으며, 서로 통혼을 해왔다. 수 세기 동안 후투와 투치라는 말은 계급의 표시였을 뿐이다. 투치는 소수의 상류 계급을, 후투는 일반 대중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150년 전만 해도 암소 열 마리를 얻은 후투는 곧바로 투치가 되었다. ‘광풍’은 본질적으로 허구이고 영터리 출생 로또인 것이다.

심지어 르완다 사람들조차 자신 있게 후투와 투치를 가려내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투치는 후투보다 키가 더 크고, 더 날씬하고, 더 유럽인같이 생겼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구름의 모습처럼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옆에서 그런 차이를 무리하게 지적해 주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다. 유전 연구에 의하면 두 민족의 차이는 전혀 없다고 한다. 두 민족의 개념이 굳어진 것은 1930년대였다. 벨기에인들은 그들의 식민 통치를 도와줄 현지인들이 필요했는데, 약간 ‘유럽인’처럼 생긴 현지인들이 그 역할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생각이고 판단인가. 독일의 나치가 유전에 대하여 이런 황당한 생각을 품으면서 유럽도 비극적인 인종 학살의 시대를 맞는데 그것은 좀 더 뒤의 일이다.

얼굴의 두께를 재는 측정기와 가짜 과학으로 무장한 벨기에 사람들은 모든 르완다인을 줄 세워놓고 후투와 투치로 구분한 뒤 그 가짜 구분을 현지인의 신분증에 새겨 넣었다. 이렇게 약 15퍼센트에 달하는 르완다인이 ‘투치’족으로 급조되어 나머지 현지인들을 다스리는 권리를 위임받았다. 신분증에 기재된 ‘후투’ 또는 ‘투치’가 표피적이고 임의적인 구분이었는데도, 이 구분은 인종 학살 당시까지 계속 위력을 발휘했다.

[나]

1949년 새롭게 탄생한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건국 당시 “언어, 지역, 경제생활 및 문화의 공동성 속에서 나타나는 심리 상태의 공통성을 기초로 해서 생성되어 역사적으로 구성된 사람들의 견고한 공동체”라고 한 스탈린의 정의를 민족을 구분하는 지표로 삼는다고 표방하였다. 이에 근거해 중국의 민족을 식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1950년 당시 민족으로 인정된 것은 몽골, 회족, 티베트족, 위글족, 먀오족, 야오족, 이족, 조선족, 만주족 등 9개 민족이었다. 그리고 1954년까지 29개 민족, 1956년까지 16개 민족이 새롭게 인정되었으며, 개혁·개방 시기에 들어간 1979년 윈난성의 지누어족을 55번째 소수민족으로 인정함으로써 건국 이래 현안으로 남아 있던 민족 식별 작업을 일단 완료했다.

그런데 이 민족 식별 작업은 당초 표방한 스탈린의 정의에 반드시 부합하는 것은 아니었다. 민족 가운데는 언어는 물론 외모, 풍습, 종교가 한족과는 전혀 다른 위글족과 같은 사람도 있는 반면, 외모상 한족과 구별되지 않으며 언어까지 사용하는 등 독자적인 지역 및 경제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한족과 구분된 회족도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치완족, 만주족, 회족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먀오족의 경우는 꾸이저우, 후난, 윈난, 충칭 등 매우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공동성을 지닌 집단을 형성한 적이 없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언어 및 생업 면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매우 희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국은 국가의 영역적 통합, 국경의 대외 안전 보장 및 국가에 충성하는 균질적인 인민의 형성이 중요한

< 뒷면에 계속 >

정치적 과제였다. 특히, 중국의 전 지역 특히 대륙 주변부의 광대한 지역에 걸쳐 분포하는 소수민족을 통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다]

가네코 후미코(1903-1926)는 항일 투쟁의 동지인 박열(1902-1974)과 함께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일본 황태자를 폭탄으로 살해하려 했다는 이유로 검거되어 사형 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연인이자 동지로서 비밀 결사를 만들어 조선의 독립과 천황제 타도를 위해 폭탄을 입수하려다 실패하였다. 두 사람은 법정을 사상 투쟁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사형 판결 후 일본 정부는 무기 징역으로 감형하였으나, 후미코는 그 서류를 찢어 버렸다. 그리고 3개월 후 23살의 후미코는 감옥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녀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식민지 조선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했고, 자신의 사상에 따라 일관된 삶을 살았다.

후세 다스지는 노동자, 농민, 및 혁명 운동가의 인권을 지키고자 변호사로서 평생을 분투한 인물로,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일본뿐만 아니라 식민지였던 한국, 타이완에서도 활동하였다. 그는 제일 한국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도 가담하였는데, 간토 대지진 후에 대역죄로 기소된 제일 한국인 박열을 변호하고 대심원 특별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일화는 널리 알려졌다. 후세는 박열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은 가네코 후미코가 옥사하자, 그녀의 유골을 인수하여 박열의 고향 묘지에 매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라]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의 논리는 민족주의를 비합리적이고 유토피아적이라고 비판하며, 따라서 민족주의를 민족공동체의 중심적인 가치 및 규범으로서, 그리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실천적 무기로서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볼 때 민족주의는 애초에 분단을 가능케 했고, 분단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면서 남과 북을 통틀어 한국사회를 불구화하는 이념적 원동력으로서 인식된다. 왜냐하면 민족주의는 근대 부르주아 혁명과 계몽주의 사상의 유산이라고 할 합리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를 통해서 남한에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북한에서는 민주주의적 사회주의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됨으로써 남북한 체제가 개방성, 근대성, 민주주의를 통하여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제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오로지 통일을 지상명제로 설정함으로써 분단이라는 구조적 환경으로부터 반드시 비롯되는 것이 아닌 문제들, 이를테면 민주화와 사회개혁의 지체의 원인을 모두 분단체제의 질곡에서 찾는 “분단체제 환원론”에 빠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러한 민족주의에 입각한 사고와 행위가 역으로 분단을 극복하는 최대의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보면, 민족주의는 근대성이나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이념이다. 민족주의가 부정되고 폐절되는 지점으로부터 비로소 근대성과 민주주의는 시작된다.

[마]

현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박물관의 급증은 정치적 상속이 작동하는 일반적 과정을 제시한다. 19세기 초까지 동남아시아의 식민통치자들은 그들이 복속시킨 문명의 고대 기념비들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켈카타에서 온 토마스 스탬포드 래플즈는 개인 소장품을 위해 그 지역의 많은 예술품을 수집했을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그 역사를 연구한 첫 식민 관료였다. 그 후로 빠른 속도로 보로부두르, 앙코르, 버강, 그리고 다른 고대 유적지들의 장엄한 모습이 계속 발굴되고 정글에서 모습을 드러냈으며, 측정되고 촬영되었으며, 재구성되고 둘레에 울타리가 쳐졌으며, 분석되고 전시됐다. 식민고고학청은 탁월하게 유능한 학자 관리들의 봉사를 요구하는 강력하고 명성 있는 부서가 됐다.

이런 변화는 양대 동인도회사(영국과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에 의해 주도되는 상업적 식민정권이 퇴조하고, 모국에 직접 밀착되어 있는 진정한 근대 식민지가 등장한 것과 연관된다. 식민국가의 명성은 모국의 명성과 밀접하게 연결됐다. 인상적인 기념물을 복구하는데 엄청난 고고학적 노력과 재원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가 그 나름의 과학적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의심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언제나 기념비의 건축자와 식민지 원주민을 어떤 위계질서 안에 놓았다. ‘기념비의 건축자는 원주민과 같은 ‘인종’이 아니다(그들은 ‘사실은’ 이주민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이는 지금의 원주민이 더 이상 그들의 가상적 조상의 업적을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세속적인 허무주의를 유발했다. 이런 관점에서 재구성된 기념비들은 그들을 둘러싼 시골의 빈곤과 병치되어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너희들은 언제나 위대한 일이나 자치를 할 수 없었거나 오랫동안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복자들은 자신의 권리나 합법성을 창조해 내려는 노력을 더했다. 더 많은 유럽인들이 동남아시아에서 태어났고 동남아시아를 자신의 고향으로 만들고 싶어했다. 기념비적 고고학은 국가를 보편적이면서도 지역적인 전통의 수호자로 보이게 했다. 옛 성지들은 식민지의 지도 안으로 통합됐고 옛 위세가 지도 그리는 사람들의 주위를 감쌌다.

고고학은 식민시대 이전의 동남아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작업이었다. 일련의 ‘고대 유적비’를 창조하고 ‘네덜란드령 동인도’와 ‘영국령 버마’를 지리·인구 분류 칸에 분류하여 넣었다. 식민국가의 고고학 유물청이 시리즈를 지도화되고 사진 찍은 형태로 수집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자 국가 자신이 역사적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시리즈를 ‘자기 조상들’의 앨범으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 국가는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고 고고학적 연결성만 갖고 있었다. 이러한 고고학적 연결성은 식민통치가 끝난 후에도 국가를 계승한 사람들에 의해 ‘오랜 역사의 장’으로 쉽게 상속되었다.

[마]

씨레질이나 할 때 입을 옷이 아니다.
 천근같이 빠지는 다리를 떼며
 더디더디 소나 몰 때 입으란 옷이 아니다.
 물꼬 보러 가는 길 정강마루 거슬러 고의춤까지
 험령한 바람 스스로 이 옷을 버리지 않고
 누대 천년 입어 입어 내려온 것은
 돌아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이다.
 눈녹이물에 마른 목 축이며
 내리붓는 대륙의 칼바람 마시며
 풀뿌리가 풀뿌리끼리 엉켜 안고
 지맥 깊은 오만 리를 뺏어가는 곳
 흰 눈이 턱 낮은 분지 위 꺼지도록 덮어야
 풀들이 옷자라고 순은의 가축떼 말없이 살찌는
 넓은 바람 끝에서 눈부신 하늘을 경배하며
 검은 머리도 흰 수건으로 가리워 쓰고

우리 할매들 싸락눈빛 백설기 시루 가득 찌놓고
 손 모두어 하늘에 빌던 곳
 반드시 돌아가야 할 그곳이 있기 때문이다.
 소정방이 끌어들여 백제민 몰아내고
 거북비 세우던 통일 따윈 말도 꺼내지 말거라.
 소악(小嶽), 천문령에 깃발 높이 달던 대조영 장군
 등모산으로 동간도로 말 몰아 달릴 때
 흰옷 입은 발해 백성 산맥을 하얗게 덮으며 오고
 말갈족도 달려와 무릎 꿇고 글 배웠니라.
 죽기 전에 그 호호한 풀밭에 못 가더라도
 엉덩이 두 쪽 푸른 반점 손주놈 태어나면
 흰 바지 저고리 양징스레 해 입혔다
 그놈 튼튼한 사내 되어 뜻 품을 나이 되면
 속옷 속에 배넛저고리 채워주며 두고두고 일러주거라
 이 옷은 유목민의 옷이었다고.

[문제 I]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문제 II]

제시문 [마]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시오. [1,001자 이상 ~ 1,100자 이하 : 배점 60점]